

제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 내달 판가름

도, 의회에 조례안 제출... 내달 5일 임시회 심의 목표
지방선거 감안 설립 시기 올해 7월서 내년 1월 조정
5년간 운영 예산 5209억원... 현행보다 386억원 절감

제주지역 하수도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제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부가 오는 2월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공단 설립 근거와 출범 시기, 재원 조달 계획 등을 담은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주시의회에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첫 회기인 내달 5일 개최하는 제4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심의되도록 의회와 협의 중이다.

민선 8기 도정이 계획한 제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다수 환경 기초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 민간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선 5기 유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민선 5기 때는 용역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타당성을 확보하며 설립 조례안까지 제출됐지만 1000명 이

상의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1실(경영지원실)·2본부(하수·환경본부) 체제에 정원 387명으로 계획됐다. 단 출범 초기엔 정원 295명에 경영지원실과 환경본부 체제로만 운영한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2028년 준공하면 이듬해부터 이 시설을 넘겨 받아 모자란 정원을 채울 계획이다.

도는 당초 공영버스 운행까지 공단에 맡겨 60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정부와의 협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직 규모와 업무를 축소했다.

설립 목표 시기도 조정됐다. 제주시도는 올해 7월 공단을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게 부적

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설립은 내년 1월에 하기로 했다.

또 도는 공단 직원들을 현재 하수도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잡고 전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도는 공단이 설립돼도 매년 공무원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정원이 비대해지거나 인건비가 이전보다 늘어난다는 점을 우려하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제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지출하는 예산은 5209억원으로, 같은 기간 민간에 맡겨 예산을 투입했을 때보다 386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UAM 수직 이착륙 위한 버티포트 실시설계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도심 항공교통(UAM) 이착륙 비행장인 버티포트 설계에 나선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버티포트는 UAM과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체가 뜨고 내리며 충전·정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주도는 정부의 2028년 UAM 상용화 목표에 맞춰 올해 하반기부터 성산항 주차장 부근 부지에 성산 버티포트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한다.

또 제주도는 제주국제공항과 중문관광단지에도 버티포트를 건설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실시설계에 나선다.

이상민기자



눈 이불 덮은 애기동백꽃 21일 제주시 해안동 한 가정집 정원 애기동백꽃에 눈이 소복이 쌓여있다.

강희만기자

울겨울 강력 한파 내습, 제주섬 ‘공공’... 4면 / 도, 함께 키우는 ‘수놓음돌봄’ 갑절 늘린다... 5면

알림

한라일보에서 당신의 꿈과 희망을 키워보세요

모집분야 : 신입·경력기자 0명
자격조건 : 초대졸 이상(재학생 지원 불가, 대학교·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마지막 학기 있는 자는 지원 가능)
※출제이지 우측 사원모집 배너(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첨부파일)
제출서류 : 한라일보 소정양식의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최종학력증명서, 자격·면허증 사본
전형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심층면접
서류접수 : halla2530@hallailbo.co.kr(이메일 접수만 받습니다)
접수마감 : 2026년 1월 23일(금)
문의 : 한라일보 총무부 ☎ 064) 750-2531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합격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주바다에 215km ‘요트둘레길’ 생긴다 도, 이호~화순~위미~김녕 등 잇는 8개 코스 조성 “2027년 1개항 첫선... 2030년까지 계획 완료할 것”

요트를 타고 먼 바다에서 한라산과 제주도 본섬을 감상할 수 있는 ‘요트둘레길’ (일명 ‘야트루트’)이 조성돼 새로운 관광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제주바다 요트둘레길’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된다. 기본계획 8개항(지형측량 포함)과 실시설계 1개항에 대한 용역으로 용역비는 1억6000만원이며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도는 8개항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1개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질적 운영에 들어간다. 이어 2030년까지 8개항을 연계한 요트둘레길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내 거점 항·포구에 마리나시설을 조성해 이와 연계한 연안크루즈 개념의 요트 관광상품 개발·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에 도는 기존에 운영 중인 김녕항과 위미항 등을 연계한 일명 ‘야트루트’를 구상하고 있다. 8개항·8개 코스로 환승투어가 가능한

215km를 잇는 요트둘레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코스별 계획은 ▷1코스(이호매립지→금능항, 25km) ▷2코스(금능항→신도항, 20km) ▷3코스(신도항→화순항, 30km) ▷4코스(화순항→위미항, 35km) ▷5코스(위미항→신천항, 25km) ▷6코스(신천항→하도항, 25km) ▷7코스(하도항→김녕항, 25km) ▷8코스(김녕항→이호매립지, 30km) 등이다.

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은 “요트둘레길이 완성되면 세일링 교육, 선상낚시 등 복합 해양레저 상품 개발과 국제요트대회 유치도 이뤄지며 요트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는 450척 규모의 요트계류시설을 보유한 전국 4위 규모의 해양관광 거점지역이다. 요트 체험 만족도는 80% 이상으로 매우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요트 수리·정비 인프라와 전문인력 부족, 고급레저에 대한 대중적 인식 부족 등의 한계점을 갖고 있다. 백금탁기자

시민의 **바람을 완성**하는 **제주**

등급으로 증명하는 제주 벌꿀

품질은 관리하고, 농가는 제대로 지원합니다

제주시는 자연 밀원에서 생산된 **제주 벌꿀**을
공인기관 검사를 통해
1+·1·2등급으로 관리하고,
고품질 벌꿀이 합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벌꿀 등급제 참여 확대 및
양봉농가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뢰받는 제주 벌꿀, 제주시가 함께합니다.

2026년 이렇게 지원합니다

- ✓ **등급벌꿀 생산장려금 6,550만 원**
(도립당/검사비 포함)
- 1+등급 70만 원 · 1등급 30만 원 · 2등급 20만 원
- ✓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3,200만 원**
- ✓ **벌꿀 소분장 설비 확충비 1천만 원**
- ✓ **제주산 1+등급 프리미엄 벌꿀 판촉 지원(예정)**

신청 대상: 제주시 관내 양봉농가·가공업체
문의: 제주시 청정축산과 ☎ 728-3843